짝퉁·잠적…소셜커머스 '피해 주의보'

광주·전남 상담 312건…전년보다 10% 늘어

계약불이행 최다…사업자·공급업체 확인 필수

#. 전남에 거주하는 30대 여성 A씨는 한 소셜커머스 업체를 통해 가방 2개를 주문했다. 상품이 품절돼 재입고 되는대로 상품을 배송하겠다는 업체의 약속을 믿고 한 달 넘도록 기다렸지만 가방은 오지 않았다.

#. 광주에 사는 30대 여성 B씨는 한 소셜커머스 업체에서 20% 할인된 백화점 상품권을 60만원어치를 구매했다. B씨는 각종 상품권으로 언제든지 교환할 수 있다는 업체의 말만 믿고 상품권 대신 온라인 상에서 현금처럼 쓰인다는 'MS포인트'를 받았다.

하지만 포인트를 상품권으로 교환하기 위해 신청을 했지만 해당업체가 폐업해 상품권을 받을 수 없었다.

스마트폰 보급으로 소셜커머스 시장이 2년 사이 급성장하면서 관련 소비자 피해도 증가하고 있다.

5일 한국소비자원 광주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올 10월 말까지 소비자상담센터(1372)를 통해 접수된 광주·전남지역 소셜커머스 관련 소비자상담 건수는 312건으로 전년 동기대비 10% 가량 증가했다. 특히 전남은 1년 사이 관련 소비자상담 26건에서 38건으로 46.2%가 급증했다.

피해 유형별로는 '계약불이행'이 55건(17.0%)으로 가장 많았고, '포인트·상품권 관련 피해'가 44건(14.1%), '유효기간 경과' 41건(13.1%), '청약철회 거부' 31건(9.9%), '연락두절 등' 25건(8.0%), '유효기간 내 환불거절' 13건(4.2%) 등의 순이었다.

피해사례 가운데는 정품이 아닌 위조상품(일명 짝퉁)을 구입해 피해를 입은 경우도 있었으며, T사와 G사 등 유명 소셜커머스 쇼핑몰도 포함돼 있었다.

연령별로는 30대(46.6%)와 20대(39.2%)가 다수를 차지했다. 이는 소셜커머스 시장이 SNS(소셜네트워크 서비스)를 기반으로 발전하면서 스마트기기에 친숙하고 구매력이 있는 20~30대가 주고객이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.

한국소비자원 광주본부는 피해방지를 위해 ▲소셜커머스 사업자와 상품제공업체가 모두 믿을수 있는지 확인 할 것 ▲충동적으로 구입했거나 불필요하게 구입했다면 7일 이내에 청약철회의사 남기고 증빙자료 확보할 것 ▲유효기간 경과하더라도 쿠폰 구입가의 70% 금액을 포인트로 적립받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할 것 등을 당부했다. /이은미기자 emlee@

▲소셜커머스(Social commerce)=페이스북, 트위터 등의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(SNS· Social Network Service)를 활용해 이루어지는 전자상거래의 일종. 일정 수 이상의 구매자가 모일 경우 파격적인 할인가로 상품을 제공하는 판매 방식이다.

상품의 구매를 원하는 사람들이 할인을 성사시키기 위하여 공동구매자를 모으는 과정에서 주로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를 이용하기 때문에 이런 이름이 붙었다.

사랑의 김~ 치 신용보증기금 호남영업본부(본부장 박철용)는 최근 김장철을 맞아 북구종합자원봉사센터의 주부봉사단과 함께 소년 소녀가정, 독거노인, 장애세대, 한부모세대 등 약 220세대에 전달할 사랑의 김장담그기 사회공헌 활동을 펼쳤다. 〈신보 호남본부 제공〉

주식거래 크게 줄었다

광주·전남 거래량 13%·대금 1362억 감소

광주·전남지역 11월 주식거래량과 거래대금이 모두 감소했다.

5일 한국거래소 광주사무소가 '12년 11월 광주·전남지역 주식거래 동향'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거래량은 5억2173만 주로 전달(5억9625만 주)보다 12.5%(7452만 주) 줄었다.

거래대금은 2조6055억 원으로 지난달 2조7417억 원보다 4.97%(1362억 원) 감소했다.

순매수량은 686만 주로 전달보다 7.36%(47만 주) 늘어났다.

지역 투자자들이 전체 거래에서 차지한 비중은 전달보다 거래량은 2.54%로 전달보다 0.09%포인트, 거래대금은 1.75%로 전달보다 0.03%포인트 각각 감소했다.

지역의 거래량 상위 종목은 유가증권시장에서 미래산업, 우리들생명과학, 우리들제약, 서니전자, 영진약품 등 순이고 코스닥시장에서 테라리소스, 국제디와이, 일경산업개발, 오픈베이스, 에스코넥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. 거래대금 상위 종목은 유가증권시장에서 우리들생명과학, 기아차, SK하이닉스, LG전자, KODEX레버리지 순이고 코스닥시장에서 안랩, KG모빌리언스,에스엠, 테라리소스, KG이니시스 등의 순이다.

/이은미기자 emlee@kwangju.co.kr

사무실도 내 집처럼…

가습기·방향제 등 '코쿠닝 상품' 인기

사무실을 내 집처럽 꾸미는 '오피스 코쿤족'이 늘면서 유통업체에서도 관련 상품이 인기를 끌고 있다.

'오피스 코쿤족(Office Cocoon)'은 사무실을 뜻하는 '오피스(Office)'와 누에고치를 뜻하는 '코쿤(Cocoon)'의 합성어로, 사무실의 자기 공간을 내 집처럼 꾸미는 20~30대 직장인들을 말한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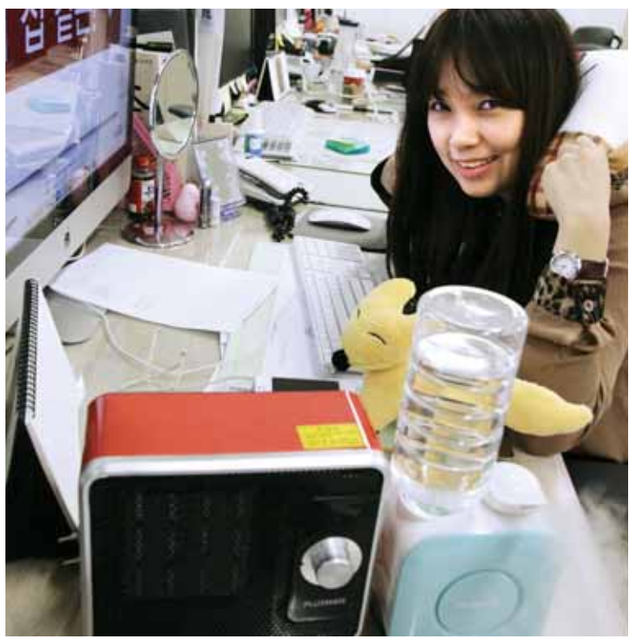
5일 (주)광주신세계가 지난 11월 한 달 간 '코쿠닝 상품' 매출추이를 분석한 결과 약 15% 증가했다.

'코쿠닝 상품'은 주로 탁상용 미니 온풍기, 미니 가습기, 방향제, USB로 연결해서 쓰는 전기방석 등을 말한다.

광주신세계에서 판매 중인 '코쿠닝 상품' 중에서는 방향제가 같은 기간 매출이 40% 가량 증가해 가장 인기 상품으로 꼽혔다.

광주신세계 관계자는 "날씨가 추워지면서 탁상용 미니 온풍기, 미니 가습기, USB로 연결해서 사용하는 전기방석 등을 찾는 고객들이 늘었다"고 설명했다.

/이은미기자 emlee@kwangju.co.kr



광주 2곳·전남 1곳 '시내 면세점' 신청

관세청은 '시내면세점 신규특허 신청'을 접수한 결과 전국 12개 지역에서 27개 업체가 신청했다고 5일 밝혔다.

이번 신청은 중소·중견기업을 대상으로 받았으며 신청업체가 가장 많은 곳은 경기지역으로 6개 업체가 냈다.

대전 4개, 인천·경남 각 3개, 대구·광주광역시·충북에서 각 2개 업체가 신청했다. 울산·강원·경북·전남·전북에서는 1개 업체씩만 냈다.

업종별로 보면 호텔업 4개, 도매업 4개, 건설업 3개, 방송공연업 3개, 제조업 3개, 백화점·임대업 각 2개로 나타났다. 기타 업종은 6개다.

관세청은 현재 시내면세점이 설치된 지역(서울·부산·제주)을 제외한 광역자치지역별로 1개 이내로 시내면세점 신규특허를 내줄 방침이다. 최종 선정업체는 세관별 현지실사, 사전승인 요청, 보세판매장특허심사위원회 심의 등 절차를 거쳐 이달말 발표될 예정이다. /연합뉴스